

동아시아 전통 喪禮 ‘披髮’의 기원 고찰

—丁若鏞 등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禮學觀을 중심으로*

趙 旭**
번역: 김태순***

- | | |
|--|--------------------------------------|
| 1. 上古 상례 중의 ‘括髮’·‘髻’ 및 정약용의 ‘說髻’와 ‘披髮’ 관련 해설 | (2) 唐宋明 官方 禮典의 ‘被髮’ |
| 2. 동아시아 각 지역의 披髮禮俗과 조선왕조의 擇從 | (3) 동아시아 각 민족지역의 披髮 습속 |
| (1) 禮典 규정과 민간의 披髮 습속 | 3. 조선왕조 典制 상례 중의 披髮과 사대부 예학 저작 중의 披髮 |
| | 餘論. 중국 예속과 조선 예속 |

초록: 儒家 경전을 지침으로 하는 喪禮儀節은 동아시아 여러 지역에 영향을 미쳤으며, 髮式 역시 동아시아 각 민족의 정통관과 夷夏 구분에 있어서 중요한 禮俗儀節이었다. 상례는 五禮 중 내용이 가장 복잡한데, 그 중 ‘披髮’ 의절의 기원과 변천은 민족과 문화 식별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조선왕조 후기의 사대부학자들은 한민족에 기반한 중화 정통관과 사회 풍속을 바탕으로, ‘披髮’의 기원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 있었고, ‘披髮’과 상례의 奔喪·飯含·조문객 맞이 사이의 관계를 바로잡으려 시도하였다. 시대적인 한계로 인하여 조선의 학자들은 ‘披髮’과 관련된 ‘被髮’·‘說髻’ 등 의절의 본말 및 기원을 완전히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조선시대 禮문화를 정밀하게 총결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상례의 전통과 변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흠시할 수 없는 공헌을 하였다.

핵심어: 披髮, 被髮, 說髻, 喪禮, 丁若鏞

* 본고는 국가교육부 청년기금항목 ‘唐宋시기의 禮學과 禮制 연구’(09YJC770029)의 부분 성과이며, 한국고등교육재단 2010-2011방문학자 지원항목 성과의 하나이다.

** 遼寧大學 歷史學院 副教授(中國 瀋陽).

*** 북경사범대학 문학원 응용언어학 박사과정

조선왕조는 上古의 ‘三禮’부터 晚宋 주희의 『家禮』까지 중국 예학을 본받았다. 관혼상제의 ‘四禮’가 그 예속의 기본 틀이다. 그 중에서 상례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상례의 披髮 의절은 조선 예속과 중국 예속의 계승관계를 반영하는 동시에, 당시 한반도의 예학 상황과 생활 습속을 반영한다. 조선후기의 저명한 학자 정약용¹⁾은 예학을 깊이 연구하여 고금에 통달하였으며, 상례 중의 각 의절에 대해 모두 설명한 바 있다. 또한 衣冠髮式은 종족문화와 관련된다. 조선 전통 상례의 ‘披髮’ 또한 그 문화연원과 사회 생활 모습을 담고 있다. 조선왕조 禮典 『國朝五禮儀』 권8 「凶禮」 가운데 「大夫·士庶人喪儀」 1장만이 ‘被髮’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禮儀에 대한 정약용의 설명 또한 사대부 상례를 기본으로 한 것이며, 왕실의 상례의절을 보자면 『國朝五禮儀』는 唐 『開元禮』에서 「國恤」을 뺀 것을 본받고, 여러 빠진 것들을 보충하였으나, 山陵제도 등 大節만을 남기고, 披髮 등 細節은 기록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상례의식에 대한 사대부학자들의 연구와 논술은 동아시아 상례전통의 연원에 대한 조선 지식계층의 탐구를 반영하며(위로는 중국 先秦禮典으로부터 아래로는 宋明 官方典章까지), 기원에 대한 탐구라는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상례 ‘披髮’ 예속이 언제 시작되었으며, 그 의절에는 어떤 특색이 있는지, 조선학자들은 당시 이 의절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였는지, 알은 지식이지만 본고에서 일일이 설명하도록 하겠다.

1. 上古 상례 중의 ‘括髮’·‘髻’ 및 정약용의 ‘說髻’와 ‘披髮’ 관련 해설

일반적으로 ‘묶은 머리와 상투’는 중원 華夏민족의 전통 髮式이라고 생각된다.²⁾ 그리고 ‘풀어헤친 머리(被髮)’는 東周시기 吳越·戎狄 지역의 주요 髮式으로, 剪髮·髮辮·垂髻 등을 포함한다.³⁾ 상례 중의 남녀 髮式은 평소와는 차이가 있었다. 중국 전통 禮典에 나오는 상례 髮式은 ‘括髮(묶은 머리)’이라 불렸다. 당송 이후의 禮典에는 被髮(披髮)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것은 중국 상례의 蠻族化·夷狄化를

1) 丁若鏞(1762~1836), 조선왕조 후기 사람으로, 그의 저작 『與猶堂全書』는 그의 외손자 金誠鎭이 편찬한 방대한 문집이다.

2) 參彭年, 2001 「束髮椎髻·非南越之俗——兼論“束髮之俗”的起源及其他」, 『中央民族大學學報』 6.

3) 參王方, 2010 「東周時期“被髮”的考古學解讀」, 『東南文化』 5.

의미하는 것인가? 被髮 또는 披髮은 蠻夷예속에서 유래하는가, 아니면 ‘三禮’경전에서 유래하는가? 필자는 당송의 被髮(披髮)이 상고의 ‘括髮’에서 유래했다고 생각한다. 당송의 被髮(披髮)은 蠻夷예속과는 다르다. 중국 주변의 소수민족이었던 蠻夷는 생산과 생활의 필요에 의해 被髮하였는데, 그들의 被髮(披髮)은 바로 ‘짧게 자른 머리’의 의미로, 주로 문신 풍습과 함께 하였다. 중국에서 남자가 목숨이 위태로울 때 被髮했던 것이 이것과 비슷할 것이다. 『孝經』의 “신체와 터럭과 피부는 부모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이념이 당송 이후에 심화되면서 상례 중의 被髮(披髮)은 머리털을 풀어 양쪽으로 늘어뜨리는 형식으로 변화하였다. 조선왕조 상례의 ‘披髮’ 의절은 당송예속에서 채택된 것이다. 이러한 한반도의 ‘중화주의’ 표현은, 고려 말기 귀족들이 몽골의 ‘야만적’ 髮式인 髻髮을 모방했던 상황을 바꾸려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사실 被髮(披髮)은 상고의 ‘括髮’에서 유래한다. 括髮의 함의에 대해 이전 학자들은 대략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상례에서는 머리싸개를 벗고, 삼으로 머리털을 묶는데, 髻이라고도 하고 髻髮이라고도 한다.” 『儀禮·士喪禮』 “끈으로 묶고 비녀를 꽂는다.” 鄭玄의 注에서는 “끈으로 머리를 묶는다.”라고 되어 있다. 古文에서는 ‘髻’·‘髻’이 모두 ‘括’이라 되어 있다. 주인은 ‘小斂’ 후에 “어깨를 드러내고(袒) 머리를 묶고 冠을 벗으며”, “남자는 髻髮이라 하고, 女子는 髻라 한다.”⁴⁾ 이러한 예들을 보면 상고 상례에서 애통함을 표현할 때는 머리를 풀어헤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括髮은 “삼으로 머리를 묶는 것”으로, 打金磚·伐子都·戰太平·羅成叫關 등의 경극에서 연기가 冠戴를 벗어 두발을 드러내고 머리 뿌리 부분을 묶은 뒤, 격렬히 머리를 흔들어 주인공의 육체적 고통과 심리적 놀람과 공포를 드러내는 것과 비슷하다. 그 전에는 또한 ‘投其冠’(모자를 벗어 던지는)과 비슷한 동작이 있었는데, 이것은 즉 冠戴를 힘껏 벗어버리는 것이다. 白帝城·洪洋洞·臥龍弔孝 등의 文戲에는 冠戴를 벗어버리는 동작이 없고, 주인공의 육체적 빈사 상태 혹은 슬픔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직접 括髮로 등장하면 되었다. 이러한 예들은 括髮 古禮의 활화석이라 할 수 있겠다. 『禮記·喪大記』 “小斂할 때 주인은 說髻한다.(袒·括髮과 병행한다.)”에서는 상례에서 括髮 외에 說髻(필자의 생각으로는 최초에는 剃髮하였는데, 이것은 귀밑털을 깎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까지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송명 이후에는 상례 시 括髮·剃髮하는 예속은 이미 程朱理學의 영향을 깊이 받은 중국인들에게 잊혀졌고, 무대 위에서의 括髮만이 남게 되었다.

4) 錢玄等, 1998 『三禮辭典』, 江蘇古籍出版社, 558, 1287면.

상례 중 남자의 括髮에 해당하는 것이 여자의 結髻이다. 남자의 括髮과 여자의 結髻는 모두 상고 상례의 髮式으로, ‘髻’는 婦女가 비녀와 머리싸개를 벗고 쪽진 머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髻는 쪽진 머리를 드러내는 것(袒)으로, 남자의 括髮과 같다.……오늘날 髻라 하는 것도 비녀와 머리싸개를 벗고 쪽진 머리를 하는 것이다. 齊衰 이상의 상복을 입을 때는 비녀를 꽂을 때에도 髻와 같이 한다. 髻가 括髮과 다른 점은, 머리싸개를 벗고 하나로 쪽진 머리를 만드는 것으로, 오늘날 아내들이 쪽진 머리를 드러내면 그와 같은 모습이다.”⁵⁾ ‘袒’은 머리털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키며, 括髮과 병행하였다. 宋人 李如圭의 해석에 의하면 『檀弓』에서 말하길, “袒은 括髮의 변형으로, 장식을 제하는 것이다. 袒과 括髮은 장식을 아주 제하여 버리는 것이다.”⁶⁾ 宋儒의 이념에 비추어보면 여기서의 ‘袒’은 당연히 알몸이 아니라 冠戴·장신구를 벗고 머리털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당송은 상례가 剃髮·括髮에서 披髮(풀어헤친 머리)로 바뀌던 과도기적 시기다. 晚宋에서 明 이후에 “신체와 터럭과 피부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다” 하여 쉽게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관념이 강화되면서 상례의 括髮이 披髮로 변하였던 것 같다. 唐 『開元禮』에서는 ‘被髮’과 ‘披髮’이 번갈아 쓰였는데, 宋 『政和五禮新儀』에서는 전부 ‘披髮’이라고 쓰였다. 이것은 글자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재적 의미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서의 披髮은 머리를 풀어 양쪽으로 늘어뜨리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상례 髮式이 조선왕조에 의해 계승되었다. 후세 상례에서 행해지는 披髮의 합리성에 대해 논증하기 위해 조선의 학자 정약용은 披髮이 古禮 회복의 표현이라 생각했다. 그의 專論 「披髮本於說髻」에서는 披髮의 기원과 변천에 대해 상세하게 논하고 있는데, 披髮은 上古 상례에서 剃髮(이름하여 ‘說髻’⁷⁾)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하

5) 『儀禮注疏』 권11, 「喪服疏」(賈公彥疏).

6) 李如圭 撰, 『儀禮集釋』 권21, 「士喪禮」.

7) 필자는 說髻가 剃髮이라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관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詩經·鄘風·柏舟』 “늘어진 저 다팔머리, 실제로 나의 남편입니다(髻彼兩髦, 實維我儀.)” 髻은 머리카락을 아래로 늘어뜨린다는 의미이다. 남자의 總角 髮式은 成年禮(冠禮) 이후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髻’를 붙여야 했는데, ‘髻’는 일종의 가발로, 양쪽 살쩍에 붙인다. 그래서 ‘兩髦’라 하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벗을 수 있었다. 『儀禮·既夕禮』 “염할 때 주인은 說(脫)髻한다.” 이것은 老萊子가 색동옷을 입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 드렸다는 의미와 비슷하다. 곧 자녀는 부모님 앞에서 평생 아이라는 의미이다(常金倉, 2008 『周代社會生活述論』,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3면 참고). 필자는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라는 사상이 『孝經·開宗明義章』에서 가장 먼저 보이고, 孝經이 漢代의 偽書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념이 학자들이 先秦 ‘三禮’에 주석을 달 때 필연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하게 하였다.

였다. 또한 정약용은 古禮에서 小斂 3일 뒤에 ‘說髻’했던 것을 始死와 연결하여 함께 놓으며, 당·송·명 및 조선왕조 상례의 披髮이 ‘說髻’에서 기원하며, ‘說髻’와 ‘披髮’ 모두 ‘始死’를 기점으로 한다고 보았다. 다음이 정약용의 “披髮은 說髻에서 기원한다”라는 학설의 주요 근거이다.

『喪大記』 “小斂할 때, 주인은 說髻(袒·括髮과 병행)한다.” 『士喪禮』 “염할 때는 說髻한다.”(疏: 士가 염할 때, 諸侯가 죽은 사람을 小斂할 때, 모두 3일 후에 한다.) 이것이 披髮의 근본이다. 髻는 아들이 부모를 섬기는 예법이다. 『禮記』·內則 “자녀는 모두 다발 머리의 먼지를 던다(拂髻).” 대개 옛날 사람들은 (태어난 지) 삼 개월에 머리를 깎아 타발을 만들었는데, 남자아이는 角을 만들고 여자아이는 羈를 만들었다. (숫구멍(역자: 갓난 아이의 정수리가 굳지 않아서 숨쉴 때마다 뛰는 곳)을 끼고 하는 것이 角이며, 午達하는 것이 羈이다.) (자식이) 자라서는 어렸을 때처럼 양쪽으로 늘어뜨림으로써 양친을 표시하였다.(鄭玄이 말하기를, 부모님께 순종하기를 어렸을 때 마음으로 한다.) 『詩』에서 말한 “양쪽의 머리를 깎는다”가 이것이다. 『玉藻』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머리를 늘어뜨리지(髻) 않고, 반드시 3일 뒤에 풀어야(脫) 한다.” 효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다시 살아나시기를 바라는데, 3일이 지나도 살아나지 않으면 이후에는 살아나지 않으신다. 그래서 袒·括은 모두 염한 지 3일 후에 하고, 說髻 또한 이러한 뜻이다. 『喪大記』 注에서는 “부친이 돌아가시면 왼쪽머리를 풀고(說左髻), 모친이 돌아가시면 오른쪽머리를 푼다(說右髻).”라고 하였다. 이러한 禮가 전해져서 被髮이 되었다. 그러므로 『宋史』에서는 “太宗이 승하하시자, 皇帝·皇后·諸王·公主·縣主·諸王夫人이 모두 左被髮(皇太后는 全被髮)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溫公(司馬光)은 『書儀』의 注에서 “세상의 풍속에서는 부친을 위해 被左髮, 모친을 위해 被右髮, 외삼촌은 被後左, 고모는 被後右하는데, 모두 禮에 맞지 않으니, 마땅히 全被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즉 당송의 被髮은 古禮의 說髻이지, 蠻俗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다. 어느 때는 左하고 어느 때는 右하는 것은, 초하루에 종묘에 제물로 바치는 양과 같다.(역자: 『論語』, 「八佾」 자공이 초하루에 양을 종묘에 바치는 예를 폐하려고 하자 공자가 말하길, “너는 양을 아끼느냐? 나는 예를 아끼느니라.”) 그런데 溫公이 全被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즉 주나라 의례와 한나라 풍속을 모두 물을 수 없다.(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說左[髻]한다는 것은 鄭玄의 注이다. 그러므로 漢俗과 周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⁸⁾

“髻는 아들이 부모를 섬기는 예법이다.”라는 구절은 說髻가 아동의 髮式에서 기원하며, 剃髮(說髻)에서 披髮로 변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披髮은 夷狄의 풍속이 아니라 中華예속이며, 이러한 사실이 바로 정약용 등 조선 학자들이 힘써 논증하려던

8) 丁若鏞, 『與猶堂全書』 3집 21권, 「喪儀節要」(한국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81 『韓國文集叢刊』, 284책, 467면).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披髮은 분명 머리털을 풀어헤친다는 함의를 지니고 있었다. 정약용이 인용한 『禮記·喪大記』에서는 “小斂할 때 주인은 방 안쪽에 위치하고, 主婦는 동쪽을 바라보고 斂한다. 斂을 마치면 주인은 이것에 의지하여 뛰고, 主婦 또한 그렇게 한다. 주인은 한쪽 어깨를 드러내고, 머리를 풀고, 삼으로 머리털을 묶는다. 婦人은 복상투(髻)를 틀고, 방 안에서 삼으로 만든 띠를 두른다.”⁹⁾라고 하였으나, 『說髻』는 이미 상례에 출현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약용은 『說髻』가 上古의 아동髮式에서 유래한다고 지적했다. “『(禮記)·內則』에서는 “자녀가 모두 다발머리의 먼지를 던진다.”고 하였다. 대개 옛날 사람들은 (태어난 지) 삼 개월에 머리를 잘라 타발을 만들었는데, 남자아이는 角을 만들고 여자아이는 羈를 만들었다. (숫구멍을 끼고 하는 것이 角이며, 午達하는 것이 羈이다). 자라서는 어렸을 때처럼 양쪽으로 늘어뜨림으로써 양친을 표시하였다. (鄭玄이 말하기를, 부모님께 순종하기를 어렸을 때 마음으로 한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說髻는 비록 머리털을 깎은 것이지만 또한 역시 상례의髮式이 될 수 있었다. ‘男角女羈’에 관해서는 여전히 두 가지 해설이 있다. 첫째, 『禮記·內則』“(태어난 지) 삼 개월 말에, 택일하여, 머리를 깎아 髻(복판만 남기고 깎은 머리)를 만든다. 남자 아이는 뿔처럼 두 개의 상투를 만들고(角) 여자 아이는 상투 세 개를 만든다(羈).” 鄭玄注: “숫구멍을 끼고 하는 것을 角이라 하고, 午達을 羈라 한다.” 孔穎達疏: “凶은 머리 위의 숫구멍을 말한다.……숫구멍 양쪽에 角을 만들어야 하는 곳은 머리털을 남기고 깎지 않는다.……『儀禮』에 의하면 ‘度尺으로 午를 만든다’라 하였고, 注에서 말하길 ‘가로 한 줄, 세로 한 줄을 午라 한다.’ 오늘날 여자아이가 머리를 깎을 때 정수리에 종횡으로 각각 서로 교차하게 남기므로 午達이라 한다.” 둘째, 明人 田藝衡 『留青劄記』 “宋 淳熙년간에, 어린이의 머리를 깎을 때 반드시 大錢許를 정수리 좌우 혹은 정수리 앞에 남기고 색끈으로 묶어, 파초를 묶은 것처럼 만들고, 勃角이라 불렀다. 나는 이것이 바로 『禮記』에서 말하는 男角이라 생각한다. 杭州의 옛 풍속에서는 아이를 낳아 한 달이 지나면 『(禮)記』의 설명을 따라 머리를 깎는데, 역시 큰 원을 하나 남기고 劉海圈이라 하였다. 나는 이것이 『禮記』에서 나오는 여자아이의 羈라 생각한다.”

그 외에도, 중국 아동의 이러한髮式은 중국 고대 북방 소수민족의 髻髮과 매우 흡사하다. 고려 충렬왕 王珣은 中統2년(1261), 쿠빌라이가 그와 칸위를 다투던 동생 아릭부케를 무찌른 것을 축하하러 세자의 신분으로 元에 온 적이 있고, 이후에도 수 차

9) 『禮記注疏』 권44, 「喪大記」.

례 元朝에 알현하러 왔다. 至元8년(1271), 王昺는 元에 와서 秃魯花, 즉 볼모가 되었다. 王昺는 볼모가 된 지 얼마 안 돼, 몽골 髮式으로 바꿨다. 본래 고려의 풍습은 漢族처럼 머리를 계속 기르는 것이었다. 반면 몽고족은 중국 북방의 선비·거란·여진 등과 비슷하여 髡髮의 습속이 있었다. 髡髮이란 중국 고대 髡刑처럼 머리를 전부 깎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은 깎고 일부분은 남기는 것으로, 종족마다 이발법이 달랐다. 『高麗史』에는 몽골 남자 髮式의 이발법이, “정수리에서 이마까지를 깎고, 그 모양을 네모지게 하고 가운데 머리를 남긴다.”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머리를 몽골어로는 ‘怯仇兒’라 한다.¹⁰⁾ 그러나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다.

정약용은 조선왕조의 저명한 고증학자이지만, 청 상례 髮式의 시말에 대해서, 즉 古禮 중의 剃髮과 束髮이 어떻게 풀어헤친 머리로 변했는지 완전히 정리하지는 못했다. 필자는 秦漢과 唐宋의 언어 습관을 살펴보아, 이러한 예속의 전승과 변천을 우선 훈고학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唐宋明清 및 조선 문헌 중 ‘披髮’은 ‘被髮’이라고도 쓰인다.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송대의 예를 들었다. “이러한 禮(필자: 앞 글과 연결되어 說髡를 가리킨다)가 전해져 被髮이 되었다. 그러므로 『宋史』에서는 “太宗이 승하하시자, 皇帝·皇后·諸王·公主·縣主·諸王夫人이 모두 左被髮(皇太后는 全被髮)하였다.”라고 하였다.” ‘被’의 옛 글자는 ‘髮’이며, 髮의 기본함의는 斷髮 혹은 割髮인데, 割髮售賣(두발을 잘라 팔다)로부터 ‘假髮’이라는 함의가 파생되었다. 『晉書·陶侃傳』 “그 모친이 두발을 잘라 雙髮를 얻어, 술과 안주와 바꿨다.”라는 구절이 그 예이다. 또한 ‘被’는 보통 ‘披’라 쓴다. 그러나 진한 시기 기록 중에서는 ‘披’자가 여전히 ‘나누다’·‘베다’로 해석되었다. 예를 들어, 『韓非子·楊權』 “여러 번 그 나무를 잘라 가지가 무성하지 않도록 하였다.” 東漢 桓譚『新論·妄瑕』 “물을 갈라 길이 보인다.” 東漢 荀悅『漢紀·哀帝紀下』 “길에서 수천 명을 만났는데, 몇몇은 披髮에 맨발로 문밧장을 부수고 담장을 넘어 집에 들어왔고, 몇몇은 말을 타고 달아났다.” 등에서의 ‘披’는 ‘斷髮’·‘割髮’로 이해해야 한다. 생각해 보면, 남자가 목숨이 위태로울 때 머리를 풀어헤치면 필연적으로 시선을 가리게 되므로, 說髡(귀밑털과 양측의 머리를 미는 것)한 뒤 다시 ‘括髮’(끈으로 머리를 묶음)하는 것이 가장 어울리는 髮式임이 분명하다. 이것 또한 披髮의 본의이다. 북송 王禹偁의 시『謫居感事』 “朱紱이 임금님 앞에 드리워져 있다”라는 구절에서야 비로소 ‘披’자에 ‘드리우다’라는 함의가 생겼다. 그러나 송대에 武將이 목숨이 위태로울 때 披

10) 『高麗史』 권28, 『忠烈王世家』.

髮한 것은 여전히 옛날과 같은 의미였다. 예를 들어, 狄靑이 “일찍이 安遠에서 전투를 하다가 심하게 다쳤다. 도적들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말을 타고 달려, 싸우고 있는 무리들 앞에서 전투에 임했다. 적들을 만나 被髮하고 동으로 만든 가면을 쓰고 도적들 가운데 들고 나니 모두 그 기세에 놀려 감당할 자가 없었다.”¹¹⁾ 그러나 언어학자들은 고서에서 말하는 ‘被髮’이 結髮·束髮과 상대되는 풀어헤친 머리를 광범위하게 가리킨다고 여긴다. ‘被髮’은 풀어헤친 머리를 가리키며, ‘被’는 ‘자르다’ 또는 ‘끊다’로 해석될 수 없다. ‘被’와 ‘披’가 通假字와 本字 관계라 하는 것은 언어의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다. ‘被髮文身’의 ‘被’와 ‘被髮及地’의 ‘被’를 同形詞로 보는 것은 언어 규율에 어긋난다.¹²⁾ 이와 상반되는 관점은 詞義 이론에서든 언어 실천에서든 ‘披’를 모두 ‘斬’류 동사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汪少華가 ‘披’와 ‘被’를 “하나의 나누어 쪼개는 것이고 하나는 베고 끊는 것이다”라고 해석한 것은 언어의 실제와 부합하지 않아 성립할 수 없다.¹³⁾ 필자는 후자의 학설이 더욱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약용이 사용한 글자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앞부분에서 조선 상례를 설명할 때는 ‘披髮’을 사용하고, 당송 상례를 설명할 때는 ‘被’를 사용했다. 그리고 상고 髮式과 상례를 설명할 때는 ‘說’(필자는 ‘脫’의 古字라고 봐야 하며, ‘깎아버리다’ 혹은 ‘베다’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을 썼다. 정약용이 보기에 被髮은 ‘說髻’의 계속이었으며, ‘被’는 ‘자르다’ 또는 ‘끊다’의 의미, 적어도 ‘제거하다’의 의미였다.

정약용은 상례를 논할 때 이 점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않아, 披髮(被髮)의 예속은 필요한 것이지만, 상례 중 시선을 가리는 폐단이 있어 ‘상주’가 조문객들을 맞는 것을 방해한다고 자주 지적하였다. (뒤에서 상세히 논하겠다) 정약용이 이해한 ‘披髮’(被髮)의 ‘披’(被)는 이미 ‘풀어헤치다’·‘늘어뜨리다’의 의미였다.

2. 동아시아 각 지역의 披髮禮俗과 조선왕조의 擇從

(1) 禮典 규정과 민간의 披髮 습속

상술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훈고학의 측면에서만 ‘披髮’(被髮)이라는 상례 의절을

11) 『宋史』 권290, 「狄靑傳」.

12) 汪少華, 2008 「再論“被髮”」, 『語言研究』 4.

13) 賈齊華, 2010 「“被髮”之再商榷——回應汪少華先生」, 『中州學刊』 6.

설명하는 것은 확실히 부족하다. 필자는 당송 예속 중 ‘披髮’(被髮)이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이라 이해된 것은 사회 습속의 원인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본 바로는 披髮(被髮)의절은 당 『開元禮』뿐만 아니라, 북송 사마광의 『書儀』·鄭居中的 『政和五禮新儀』와 『明集禮』에도 비슷한 규정이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기록들에서의 披髮(被髮)은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일까 아니면 귀밑털을 밀고 머리를 묶는 것일까? 이를 설명할 직접적인 근거는 없지만, 당송 시대 官의 관념을 가지고 보자면, 당송시기는 括髮·剃髮이 풀어헤친 머리의 의미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사용된 글자를 가지고 보자면, 『開元禮』에서는 ‘被髮’과 ‘披髮’을 섞어 쓰다가, 『政和五禮新儀』에서는 전부 ‘披髮’로 바뀌었다. “신체와 터럭과 피부는 부모님께 받은 것이므로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注: 부모가 온전히 낳아주셨으니 온전한 몸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감히 훼손할 수 없다. 세상에서 지위를 확고히 세우고, 후세에 이름을 날려 부모를 빛내는 것이 효의 마지막이다.) 이것은 『孝經』의 正文과 注疏이다. 『孝經』은 孔子가 지었다고 전해지지만, 남송시기에 이미 후대인의 저작이 아닌가 의심을 받았다. 청대 紀昀은 『四庫全書總目』에서, 이 책이 공자의 “칠십 제자가 남긴 말”이며, 책으로 만들어진 것은 秦漢 사이라고 하였다. 서한에서 위진남북조에 이르기까지 『孝經』의 注解者는 百家에 이른다. 현재 유행하는 판본은 唐 玄宗 李隆基가 注를 달고 宋 邢昺이 疏를 단 것으로, 당대에 황제의 명의로 注疏를 달았다는 것에서 그 지위가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다.

상례의 剃髮·括髮이 披髮로 변해가던 과도기 당송시기에는, 逢喪이나 奔喪시에 披髮하는 풍속이 父兄·尊長의 장례를 치르는 여자에게서 많이 보였다. “(劉寂의 처夏侯씨는)부친이 돌아가시자 수척해져서 상을 치르지 못할 지경이었고 被髮에 맨발(徒跣)이었다.” “(효녀 王和子는 徐州人으로) 父兄이 변경에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被髮에 맨발을 하고 상복을 입고 홀로 구걸하며 涇州로 가서 父兄의 시신을 수습하여 徐營에 돌아와 장례를 치르고, 스스로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고, 머리털을 잘라 외모를 상하게 하고 묘소에 여막을 지었다.”¹⁴⁾ “初에 齊王憲의 딸이 과부로 살았는데, (李綱이) 그를 매우 공훈히 여겼다. (李綱이) 죽자 여자가 被髮하고 호곡하였는데, 그 부모의 상을 치르는 것 같이 하였다.”¹⁵⁾ 『開元禮』에는 상을 당하여 披髮하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唐代 문헌 중 남자가 상을 치르면서 披髮(被髮)하였다는 기

14) 『舊唐書』 권193, 「列女傳」.

15) 『新唐書』 권99, 「李綱傳」.

록은 드물다. 남자의 披髮(被髮)은 대개 사형장에 죽으러 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문헌 기록은 대개 상술한 荀悅『漢紀』의 예와 비슷하며, 상례와는 관계가 없어 따로 예를 들지 않겠다. 상을 당하여 披髮·徒跣하는 것은 상례 중 애통함이 심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송명 禮制에 계승되었다.

쉽게 흘시할 수 없는 사실은 머리를 풀어헤치는 습속이 자주 唐代 무격 활동과도 관련된다는 것이다. 唐初, 裴寂의 집에서 “요괴가 수 차례 보여,” “마침내 무당을 별 아래로 불러, 被髮에 칼을 입에 물고, 요괴를 누르는 주술을 쓰게 하였다.”¹⁶⁾ 唐詩에 자주 보이는 “세상살이 의미 없으니, 내일 아침 散髮하고 쪽배에 올라 노닐어야지.”(李白「宣州謝朓樓餞別校書叔云」) “큰 소리로 노래 부르며 芳杜(역자: 향초의 일종)를 소중히 생각하고, 머리 풀어헤치고 화려한 벼슬길 가버이 여기네.”(顧況「遊子吟」) “山人은 맑은 경치가 좋아, 散髮하고 누워 가을 바람 맞네.”(劉希夷「嵩岳聞笙」) “散髮하고 阮籍과 같아지려 하고, 무심하게 감히 巢(역자: 도교 신화 중에 나오는 麻姑의 딸)를 사모하네.”(陸龜蒙「襲美見題郊居十首——因次韻酬之以伸榮謝」) 등의 구절에서도 散髮이 신선의 풍모와 도인의 골격·욕심 없는 은거·영혼 및 신과의 교통·자연에의 회귀 등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生死之道를 느끼게 하는 상례와 부합하는 면이 있다. 관직에 있는 사람은 상례 중에 벼슬을 내려놓고 상을 치르게 되는데, 이것 역시 욕심 없이 은거하고자 하는 정서에 부합한다. 따라서 필자는 唐詩에 나오는 散髮이 상례 髮式의 변화에 영향을 준 문화적 배경 중 하나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官의 典禮에서 상례 披髮 의절이 제정되었을 때 그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왜 당대의 상례에서는 披髮이라는 항목이 그렇게 강조되었을까? 분명, 민간의 여자들이 披髮하고 호곡한 것은 국가 禮典을 따른 것이 아니며, 신선의 풍채와 도인의 골격을 추구하여 披髮했던 문인들 또한 통치자와 정통 사대부에게 존경 받기 위해 그리했던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가지 대담한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禮制에 의하면(이 글에서는 ‘主人’과 ‘主喪者’에 대한 각주가 명확하다), 여자는 상주가 될 수 없고, 그의 舅(시아버지)·남편·장자가 일반적으로 상례를 주관하는 主祭者가 되었다. 그래서 당대에 여자들은 상 중에 披髮(머리를 풀어헤침)해도 되었다(飯含과 조문객 접대를 하지 않으므로). 그리고 이후, 상례에서 披髮(머리를 풀어헤침)하는 것이 의절이 되고 이에 대한 인식이 더욱 강화되었다. 당대에 남자가 상례 중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披髮했는지는 자세히 알기 어렵다. 또한 머리를 풀어헤치

16) 『舊唐書』 권57, 「裴寂傳」.

고 맨발로 다니는 것은 무당이 영혼과 교통하는 행동으로, 애곡할 때 이러한 髮式을 택해야만 망자의 영과 교통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남자의 披髮(머리를 풀어헤침)도 애곡하는 과정에서 확립되었다.

주지하듯, 당대는 민족 정책이 개방적인 시대였으니 주변 민족들의 披髮습속이 당에 영향을 미치지지는 않았을까? 혹은 무격의 기풍이 성행함에 따라 披髮의 의미가 점차 변하다가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으로 되었을지도 모른다.

宋元 사이에 주희의 손자 朱鑒 編『文公易說』 권11 · 董楷 撰『周易傳義附錄』 권10 「系辭」에서는 모두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의 이념을 강조했다. 청대에는 剃髮이라는 官定 髮式이 있었으나 학자들은 여전히 상례 중 “평소처럼 손톱을 깎았지만”(註曰: 蚤는 爪로 읽는다. ……), “수염을 깎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陳注『喪大記』에서는 즉시 잘라낸다는 뜻을 따른다.” 그러나 신체와 터럭과 피부는 부모님께 받은 것이라 감히 훼손할 수 없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것을 자를 것을 고려하였다. 이것은 정말로 크게 무도하여, 어진 이와 효자가 참지 못할 말이다. ……즉 목욕을 마치면 수염이 헝클어질 수 있으므로, 깎아서 정돈하여 나눈다. 聖經의 뜻을 읽는 사람은 그 뜻을 헤아려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世佐에 의하면……옛날 사람들은 목욕하고 머리를 빗은 후에, 반드시 손톱을 깎고 수염을 잘라 그 용모를 단장했으니 이것은 일반적인 일이었다. 손톱은 그 쓸모 없는 것을 자르는 것이다. 그 지저분한 것을 제거하는 것에 불과하니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世儒들은 이러한 뜻을 모르니, 이것에 의문이 없지 않을 수 있겠는가?”¹⁷⁾라 여겼다. 청대에는 비록 평소에 剃髮하고 상례 중에도 손톱과 수염을 깎도록 주장하였지만, 여전히 “즉시 잘라내는 것을 따르는 것”은 반대했으며 더욱이 살쩍과 머리털을 깎는 의미는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 또한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이라는 관념의 심화라 할 수 있다.

(2) 唐宋明 官方 禮典의 ‘被髮’

披髮은 唐『開元禮』에 보일 뿐만 아니라, 북송 사마광『書儀』未見 · 鄭居中『政和五禮新儀』 및 『明集禮』에도 모두 비슷한 규정이 있다.

필자는 정약용이 인용한『開元禮』는『開元禮』의 원문이 아니라 일종의 轉述이며,

17) 盛世佐, 『儀禮集編』 권27, 「士喪禮第十二」.

당대의 규정을 “妻妾子女가 모두 披髮한다”라고 모호하게 개괄하여, 跣足(맨발)하지 않았던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唐 開元 20년 頒行之『開元禮』 권138 「三品以上喪之一」 ‘初終’ 조목 및 권142 「四品五品喪之一」 ‘初終’ 조목에서는 “병이 나면, 남편·부인이 각각 正寢에서 상복을 입고 北墉 아래에 동쪽으로 머리를 둔다. 봉양하는 사람은 남자와 婦人이 모두 朝服을 입고, 재개하고 친히 약을 마시는데 아들이 먼저 맛보았다. 병이 심하면 옛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힌다.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제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위해 나누어 기도한다. 시중드는 네 사람이 앉아서 손발을 잡고, 유언이 있으면 기록하고 숨을 대어 숨을 쉬는지 확인한다.(續은 새 숨을 입과 코에 놓는 것이다.) 숨이 끊어지면 시신을 침상에서 내려 바닥에 눕히고, 주인은 소리 내어 울고,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곡한다. 남자는 白布衣로 갈아입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을 하며, 婦人은 青縑衣를 입고 被髮하지만 맨발은 하지 않는다. 딸도 이처럼 한다. (부친이 장자를 위하고, 남의 집에 양자로 간 사람이 친부모를 위할 때, 부모는 모두 흰 冠을 쓰고 徒跣하지 않으며, 시집간 딸은 髻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삼으로 머리를 묶어 髻한다”『政和五禮新儀』 권215 「品官喪儀上」 및 권218 「庶人喪儀上」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는데, 그 내용은 대략 비슷하다.『開元禮』 권146 「六品以下喪之一」 ‘初終’ 조목도 앞의 예와 대략 비슷한데 오직 披髮에서만 “남녀가 울고 뛰기를 무수히 하며,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곡한다. 내외가 소복으로 갈아입고, 처첩은 모두 披髮 徒跣하고 딸은 徒跣하지 않으며, 출가한 딸은 髻한다. (남의 집에 양자로 간 사람은 낳아준 부모를 위해 소복을 입고 徒跣하지 않으며, 主人·主婦는 의복을 갈아입지 않고, 남자는 일하기 위해 휘장을 설치한다.)”라 규정하였다.

상을 당하여 披髮·徒跣하는 것은 상례 중 심한 애痛的 표현으로, 송명 禮制에 의해 계승되었다.

『明集禮』 권37하 「凶禮三」 “庶人凶禮” 조목에서는 “병이 들면 正寢으로 옮겨 거하고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제사 지낼 것을 나누어 기도한다. 사람들에게 앉아서 손발을 잡게 하고 유언이 있으면 기록하고 숨을 코와 입에 대어 숨을 쉬는지 확인한다. 이후 숨이 멎으면 곡하고 시신을 침상에서 바닥으로 옮기고 옷을 갈아입는데, 남자는 옷깃을 걷어 올리고 머리를 풀고 맨발을 하며, 부인은 冠을 벗어 머리를 풀되, 맨발은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였다. 정약용의 禮에서는 披髮이 당대와 직접 연결되고 여기에서 ‘옷깃을 걷어 올리는’ 細節은 명대의 典禮와 같다.

종합하면, 唐宋禮는 남자(상주를 시작으로)가 모두 披髮 跣足하고, 妻妾 또한 이

렇게 하며, 출가하지 않은 딸은 披髮하고 跣足하지 않으며, 출가한 딸은 披髮하지 않고 ‘髻’(머리를 묶은 뒤 드러내는 것)하고 跣足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명대에는 “婦人是 冠을 벗고 被髮하며 徒跣하지 않는다.”라고 개정되었다.

(3) 동아시아 각 민족지역의 披髮 습속

‘束髮椎髻’은 일반적으로 중원 華夏민족의 전통 髮式이라 여겨진다. 『論語』의 “管仲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들도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섶을 왼쪽으로 여미었을 것이다.”라는 개탄 또한 束髮과 披髮을 대립시켜, 華夏禮俗과 夷狄之俗의 중요한 구분으로 만들었다.

吳越지방에는 머리털을 자르고 문신하는 풍속이 있는데, 그 풍속이 다른 지역에 전파되었다. 『史記』에서는 “古公이 말하였다. ‘나의 아들 중 흥성할 사람은 昌일 것이다.’ 장자인 太伯과 虞仲은 古公이 季歷을 세우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고, 昌에게 자리를 넘기고, 荊蠻으로 도망가서 문신하고 머리를 잘랐다. 또한 후대의 “越王 勾踐의 선조는 禹의 후손이고, 夏后帝少康의 서자이다. 會稽에 봉해져서 禹의 제사를 지켰다. 문신하고 머리를 잘랐으며, 풀이 무성한 토지를 개척하여 도읍으로 삼았다.” 사마천은 예속이 생산 및 생활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禮라는 것은 일을 편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성인은 그 고을을 살펴본 후에 마땅한 것을 따르며, 일에 따라 禮를 정한다. 그래서 그 백성을 이롭게 하고 나라를 두텁게 한다. 무릇 머리를 자르고 몸에 문신을 하며, 팔에 문신을 하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는 사람들은(『索隱』 “錯臂 또한 문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붉은 염료와 푸른 염료로 그 팔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甌越의 백성들이다.”¹⁸⁾ 자른 머리와 문신은 甌越 사람들의 두드러지는 특징이 되었다. 어업을 생업으로 삼는 倭人들 역시 甌越의 풍속을 따랐다. 『晉書』 “倭人은 帶方의 동남쪽 大海에 산다.……魏나라 때는 30國이 있었고 서로 通好하는 가구가 7만이였다. 남자는 나이에 관계 없이 모두 얼굴에 먹물로 그리고 문신하였으며, 스스로(吳)太伯의 후예라 하였다. 또한 말하길 上古에 사신이 중국에 오면, 모두 스스로 대부라 칭하였다. 예전에 夏少康의 아들을 會稽에 봉하였는데, 머리를 자르고 문신하여 蛟龍의 해를 피하였다. 지금 왜인들은 물 속에서 고기 잡기를 잘하고, 또한 문신을 하여 물 속 침승을 피한다.”¹⁹⁾ 머리를 자르는 풍속이 성

18) 『史記』 권4, 「周本紀」; 권43, 「趙世家」.

19) 『晉書』 권97, 「四夷傳」.

행하게 된 것은 분명 호전적인 민족성격과 관계가 있다. 『韓非子』는 “越人들은 용맹함을 좋아한다.”라고 하였는데, 그 말은 틀리지 않아 자른 머리가 바로 그 호전적인 성격에 맞는 것이었다. “南蠻 雜類와 華人是 사는 모습이 다르다……모두 君長이 없으며 산 속 동굴에 사는데, 선조들이 百越이라 불렀던 사람들이 이들이다. 그들의 풍속은 머리를 자르고 문신하고, 서로 공격하기를 좋아한다.”²⁰⁾

崇文과 右武 두 종류의 민족문화를 가지고 분석한다면 束髮冠戴는 자연 崇文의 표현이고 斷髮紋身은 右武의 표현이다.

조선왕조의 백성들은 중국 조정의 눈에는 外夷로 보였지만, 그 통치계층 및 사대부는 중화라 자처하였고, 그 예속이 중국에 가까웠다. 퇴계 이황은 箕子가 동쪽으로 와서 九疇·八政之教를 시행하고, 井田 제도를 제정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고려 건국 500여 년간 세상의 도가 융성하고, 文風이 점차 열렸으며, 중원에 다녀오는 선비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經籍이 흥행하고 난리가 다스려지고 중화를 사모하여 夷가 변화되었다. 조선은 詩書의 은덕·禮儀의 기풍·箕疇의 가르침이 점차 부흥하여, ‘小中華’라 칭하며, ‘吾東’은 “文獻之邦, 君子之國”이라 하였다. 이것이 조선의 ‘중화주의’이다.²¹⁾ 학자들은 조선을 小中華라 칭하였으며, 명 제국의 藩國이었던 조선은 그 문화가 자연히 문을 숭상하고 중화를 사모하는 성격을 띠었다.

정약용은 조선 상례를 설명하면서 매번 ‘披髮’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즉 머리를 풀어헤친다는 뜻으로 그 의미는 감히 髮膚를 훼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주변 夷狄과의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중화주의 정통관을 유지하려 하였다. 주지하듯, 고대 동북지방에는 선비·유구·거란, 심지어 바다 건너 일본까지 많은 민족들이 모두 翦髮이나 髡髮을 髮式으로 삼았다. 그러나 고려와 조선왕조는 홀로 묶은 머리와 전체를 기른 머리의 禮를 고수하였다.

3. 조선왕조 典制 상례 중의 披髮과 사대부 예학 저작 중의 披髮

조선왕조의 국가 禮典은 『國朝五禮儀』로, 세종대왕 때 편찬되기 시작하였다. 세종

20) 『隋書』 권92, 「南蠻傳」.

21) 辺英浩, 2006 『朱子學の比較政治思想史的特質——以李退溪·李栗谷為中心的觀察』, 日本神戸大學 박사논문, 195~198면.

26년(1444) 10월 丙辰(11일), “僉知中樞院事 卞孝文과 鄭陟, 成均司藝 閔瑗, 集賢殿校理 河緯地, 博士 徐居正, 校書校勘 樸元貞, 承文院副正字 尹愬는 집현전에서 『五禮儀注』를 상세하게 정하라.”²²⁾고 명하였다. “집현전 儒臣들에게 명하여 『五禮儀』를 상세하게 정하도록 명하였다. 모두 杜氏의 『通典』을 모방하고, 또한 여러 책들을 채집하였으며, 검하여 중국의 『諸司執掌』·『洪武禮制』와 우리나라의 『東國今古詳定禮』 등의 책을 사용하여 참작하여 빼고 더하여 성스러운 마음을 기록”하였으나, “사용되지는 못하였다.” 세조 때에 또한 이 책을 “條章이 번잡하고, 앞뒤가 맞지 않아 法으로 삼을 수 없다.”라 하였다가, 『經國大典』을 修撰할 때 “世宗朝에 제정한 『五禮儀』에 의거하여 옛 것을 상고하고 지금의 것을 실증하여,……이름을 『五禮儀』라 하여, (『經國大典』의) 『禮典』 끝에 부록으로 실었다.” 이어 成宗 5년(成化 10년, 1474), “특별히 高靈府院君臣 申叔舟에게 총괄하도록 명하였다.” 그 五禮의 목록은 吉·嘉·賓·軍·凶의 순서로 배열되는데, 姜希孟이 五禮를 해석한 순서는 전통적인 吉·凶·軍·賓·嘉이었다. “제사에서 吉의 禮가 나오고, 死喪에서 凶의 禮가 나오고, 備禦에서 軍의 禮가 나오고, 交際·冠·婚의 중요함에서 賓과 嘉의 禮가 나온다.” 『國朝五禮儀』가 책으로 나오면서 “위로는 조정으로부터 아래로는 사대부와 서인에 이르기까지 각각 정해진 예가 있어 서로 넘지 않으며,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이치와 曲禮의 소소한 예절이 찬란하고 문란하지 않으니”, 그래서 姜希孟은 “실로 우리 동방 만세의 令典이다.”²³⁾라고 감격하였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인하여 『國朝五禮儀』는 유일한 禮儀典範이 아니다.

본고에서 필자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國朝五禮儀』에 대한 조선 사대부 학자들의 보충과 연구이다. 『國朝五禮儀』 중 「大夫·士庶人喪儀」一章만이 ‘披髮’ 의절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막 돌아가셨을 때……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지 않는다. 妻子·婦·妾은 모두 冠과 上服을 벗고, 머리를 푼다. 남자는 옷깃을 걷어 올리고 맨발을 하고, 모두 화려한 장식을 벗는다.(남의 집에 양자로 간 사람이 친부모를 위하는 경우 및 출가한 여자는 모두 머리를 풀거나 맨발을 하지 않는다.)²⁴⁾

위의 正文에는 남자가 부모의 상례에서 披髮(오직 여자가 남편을 위해서만 披髮

22) 『世宗實錄』 권106(1955, 국사편찬위원회, 4책, 589면).

23) 申叔舟 編 『國朝五禮儀』序(1994, 민창문화사 영인본, 1~2면).

24) 『國朝五禮儀』 권8, 「凶禮」, 337면.

하였던 것 같다.)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주석에서 “남의 집에 양자로 간 사람이 친부모를 위하는 경우 및 이미 출가한 여자는 모두 머리를 풀거나 맨발을 하지 않는다”라 한 것은 분명 아들이 부모의 상(斬衰를 입는 삼년상이나 齊衰를 입는 期年상)에서 반드시 披髮해야 한다고 암시하고 있다. 이렇듯 『國朝五禮儀』의 규정은 종종 모호하다. 조선의 학자 星湖 李瀾은 披髮을 시작하는 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외지에 있을 경우 상에 대해 듣고 奔喪할 때부터 시작하고, 집에 있을 경우 始死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披髮은 삼년상의 重喪에 적용된다. “被髮은 남의 집에 양자로 간 사람이 친부모를 위할 때나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를 위할 때, 시집간 여자가 부모를 위할 때,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손자가 할머니의 상을 치를 때는 모두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상은 모두 期喪으로, 3년의 重喪이 아니기 때문이다.²⁵⁾ 이상의 내용은 官의 禮典에 대한 사대부들의 보충 및 각기 다른 해석을 보여 준다.

정약용은 披髮(머리를 풀어헤침)이 필수적인 예속이라는 주장을 견지하여, 聞喪의 시작과 奔喪하는 중에도 또한 披髮로 응해야 한다고 하였다. 披髮은 조선의 일상 髮式과 큰 차이가 있어 여행 중에는 매우 곤란하였다. 그래서 奔喪 중의 髮式은 사실 중국 상고의 ‘括髮’과 더 비슷했다. 그러나 반드시 먼저 비녀와 망건을 벗고, 끈으로 括髮한 후, 四腳襪頭를 써야 길을 나설 수 있었다.

정약용은 「奔喪」一節에서 사마광의 『書儀』와 주희의 『家禮』를 종합하며, 다음과 같이 보충해서 말하였다. “『書儀』에서는 포를 찢어 四腳을 만들고,……여기에 마땅히 披髮一節이 있어야 하는데, 『家禮』에는 보이지 않는다. 『儀節』入門再變服 조목에서는 東方에서는 상을 당하자마자 披髮한다. 즉 喪에 대해 듣자마자 披髮 徒跣한다. 그러나 被髮하고 길을 갈 수는 없으므로 머리를 틀어 올리고, 四腳巾을 쓴다. 집에 도착하면 또 披髮 徒跣한다.”라고 하였다. 나의 생각으로는 당송의 여러 禮에는 奔喪者가 披髮한다는 글이 없다. 아마 披髮이 여행자의 차림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므로 반드시 상가에 와서 披髮한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披髮을 천지의 뜻이라 여기고, 沙溪²⁶⁾의 말을 좇아, 喪에 대해 듣자마자 披髮하고, 삼으로 撮

25) 李瀾, 『星湖全集』 권32, 「書·答人問目(己未)」(『韓國文集叢刊』 199책, 74면).

26) 沙溪는 조선의 학자 金長生으로, 字는 希元이다. 율곡 이이에게서 성리학을 배웠다. “매일 經傳과 濂·洛(周濂溪·二程子)의 여러 책들을 구하여, 그 뜻을 깊이 연구하였다.” 일찍이 申義慶이 편찬한 喪制書를 보충하여 『喪禮備要』라 하고 세상에 전하였다.……84세 때 집에서 병으로 죽었다. 학자들이 沙溪先生이라 칭했다. (임금께서) 부고를 듣고, 제사와 賻儀를 내려주고, 吏曹判書의 벼슬을 주었다. 장사를 지낼 때는 本道로 하여금 造墓軍을 보내도록 하였고, 원근에서

髻(위에 冠을 쓰지 않으면 括髮이라 한다.)를 묶고, 白布두건(生布가 아니어도 되고, 四腳이 아니어도 된다.)을 쓰고, 위에 涼笠(햇빛 가리개)이나 혹은 方笠을 쓰고 베로 만든 띠를 띠고(父喪에서는 띠를 두르지 않아야 하지만), 짚신 신고 길을 떠난다. 안장에 딸린 여러 기구는 풀과 삼으로 엮은 것으로 바꾼다. 또한 四腳이라는 것은 襪頭의 다른 이름으로 宋人들은 평소에 원래 襪頭(즉 소위 말하는 腳을 짚 비단 두건)를 쓰고 길을 나섰다. 그러므로 奔喪者는 白布로 갈아입기만 하면 된다.……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소에 길을 나설 때 원래 챙이 있는 모자(옷 칠한 베 삿갓)를 쓰므로 喪者가 길을 갈 때도 또한 반드시 方笠·涼笠 같은 것을 써야 하고, 부득이하게 厭(壓)冠이나 麻經을 쓰고 문을 나서는 것이다. 하물며 奔喪하는 사람이……더욱이 어떻게 그 면목을 드러내고, 모질 게 문을 나서 길을 갈 수가 있겠는가?”²⁷⁾

奔喪 중에 쓰는 복두는 唐宋官民의 평상복으로, 본래는 검은색인데 조선은 奔喪시에 흰색으로 바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金長生(栗谷 李珥의 문인, 沙溪先生, 1548년~1631년)은 조선 髮式의 특징에 근거하여 披髮을 없애려 하였으나 그러지 못했다.

옛날에는 반드시 3일을 기다려 說髻하였으나 지금은 고인이 사망하자마자 被髮한다. 그 불쌍히 여겨 슬퍼하는 마음이 옛날사람만 못하나 풍속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도 앞으로 늘어뜨리는 것만은 합당하지 않다. 머리를 풀어 두 갈래로 늘어뜨리는 것은 대략 옛 뜻을 담고 있으니 가하다.

『沙溪欲廢被髮』 溫公이 말하기를 “비녀(笄)와 머리싸개(纚)는 지금 사람들은 평소에 하지 않는 것이다. 被髮은 더욱이 애통하여 용모를 꾸미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唐)開元(禮)』을 따른다.” 지금 사람들은 머리털을 싸는 纚는 사용하지 않지만, 비녀를 머리에 꽂으며, 망건이 纚와 비슷하다. 지금은 喪卻과 冠帽를 벗고 망건과 骨笄을 드러내고, 括髮할 때 그것을 벗는데 古意와 비슷하다. 지금 나라 사람들은 禮에 대해 말할 때 모두 沙溪를 따르는데, 沙溪의 이러한 논의도 또한 행해지지 않았다. 풍속이 변할 수 있겠는가?²⁸⁾

상주는 언제까지 披髮을 해야 하는가? 정약용의 예학 範式에 의하면 상례는 19개의 의절로 구성된다(『國朝五禮儀』에 비하여 상세하게 나와 있다.). (1) 始死(始卒),

장사하러 모인 사람이 천 명에 가까웠다(『仁祖實錄』 권25, 9년[1631] 8월 9일 庚戌).

27) 丁若鏞, 『與猶堂全書』 3집 5권, 「喪禮四箋」(『韓國文集叢刊』 284책, 108면).

28) 丁若鏞, 위의 책, 3집 21권, 「喪儀節要」, 467면.

(2) 設奠, (3) 告訃, (4) 治棺, (5) 設銘(與設重), (6) 襲含, (7) 小斂, (8) 大殮, (9) 成服, (10) 成殯, (11) 既殯, (12) 啟殯, (13) 發引, (14) 窆, 止哭; 賓弔如禮. (15) 虞祭, (16) 卒哭·祔, (17) 小祥, (19) 禫祭. (1) 始死부터 (14) 窆까지를 상례라고 볼 수 있으며, 그 다음부터는 喪服과 祭禮이다.

披髮을 奔喪·始死의 시작부터 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학자들과 사대부들의 주장에는 小斂說과 成服說 두 가지가 있다. 小斂은 고인이 사망한 지 둘째 날 아침, 방에 斂할 것을 진열해 놓는 것이고, 成服은 다음날 날이 밝을 무렵 상복과 지팡이를 집 밖에 진열해놓는 것을 가리킨다. 成服은 大殮 다음날로, 고인이 사망한 지 넷째 날이다(소위 “산 사람의 일은 이튿날부터 계산한다. 그래서 經에서 말하길 (사망한 지) 3일에 成服한다고 한 것이다.”라는 것이다.). 披髮 때문에 조문객들의 조문은 자주 成服·啟殯 이후, 지팡이(杖)를 잡고 머리에 끈(經)을 두르는 때로 안배되었다. 예를 들어, 中宗 18년(1523) 2월 14일(乙酉)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金希壽가 힘껏 成服說을 주장하고, 이로써 弔喪 등의 여러 일을 바로잡으려 하였다.

左承旨 金希壽가 아뢰기를 “전례를 살펴보면, 成希顔의 卒翌日에 임금께서 承旨를 보내어 조문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때 政院이 아뢰기를 ‘主人²⁹⁾의 喪服 절차가 자못 많으

29) 여기서 主人은 상주를 가리키는데, 禮制에 의하면 반드시 남자가 맡았다. 부친이 계시면 嫡子와 嫡孫이 상주가 될 수 없었다. 弘文館 副提學 奇自獻(等)이 아뢰기를 “…… 婦의 喪에, 虞와 卒哭에서는 그 남편이 아들에게 주관하게 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儀禮』에 나온 뿐만 아니라, 『禮記』 喪服에도 기록되어 있고, 杜氏 『通典』, 『朱子書』 答李孝述問 조목 중에도 나옵니다. 이를 통해 보면, 아들 역시 제사를 주관할 수 있다는 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禮』에서는 ‘모든 喪에서 부친이 계시면 부친이 상주가 된다.’라고 하였고, 또한 ‘부친이 계시면 아들은 제사를 주관할 수 없다’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고금에 通行되는 經입니다. 『儀禮』에서 말한 소위 婦의 喪에서 虞와 卒哭은 그 남편이 아들에게 주관하도록 한다는 것은 남편이 있으므로 혹은 그 아들이 주관해도 된다는 뜻 같습니다. 또한 그 經에서 말하길 ‘虞와 卒哭은 그 남편이 아들에게 주관하도록 하고 合祭할 때는 시아버지가 주관한다.’ 注에서는 ‘婦는 모든 適婦와 庶婦를 이른다. 虞와 卒哭 때 婦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시아버지의 일이 아니며, 祖廟에서 합제할 때는, 尊者가 마땅히 주관해야 한다.’ 疏에서는 ‘虞와 卒哭 때, 그 남편이 아들에게 주관하도록 한다는 것은, 虞와 卒哭은 寢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남편이나 혹은 아들이 주관할 수 있는 것이다. 祔는 祖廟에서 합제하는 것으로 그 중함이 매우 심하므로 시아버지가 주관한다.’라 하였습니다. 『禮記』 注에서도 역시 ‘尊卑가 다르므로 주관하는 사람이 다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즉 尊卑에 따라 주관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말이니, 오늘날 인용되는 말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諸家朝奠設饌 조목을 살펴보면, 문기를 ‘모친 喪에서 朔祭를 지내는데 아들이 주가 되었습니다.’ 朱子가 말하길 ‘모든 喪에서, 부친이 계시면, 부친이 상을 주관한다. 즉 부친이 계시면, 아들은 상주가 되는 禮가 없다. 부인의 상에서는 남편이 상주가 된다. 오늘날 아들이 상주가 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것 같다.’ 楊氏가 다시 말하길, ‘初喪立喪主 조목에 따르면, 주인은 보

니, 喪服 후에 하시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5일 후에 承旨를 보내 조문하게 하였습니다. 宋軼이 죽었을 때는 10일 후에 승지를 보내 조문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成希顔·朴元宗이 죽었을 때는 10일 내에 承旨를 보내 別祭하였는데, 宋軼 때는 그런 일이 없었기에 감히 아쉽니다.”(임금께서) 전하여 이르길, “領相의 집에서 成殯하고 난 뒤, 右承旨 金末文이 가서 조문하였다. 또한 元宗·希顔은 나라의 큰 공신이기 때문에 別祭한 것이다. 지금 金詮處는 別祭는 안 했지만 禮曹에서 致祭(역자: 임금이 제물과 제문을 보내어 죽은 신하를 제사 지내던 일)하는 날에, 承旨가 가도 괜찮다.” 右承旨 金末文이 아뢰기를 “領相의 집에 조문하러 가는 일은, 禮文을 살펴보니 喪主가 임금의 조문을 받을 때 마땅히 지팡이(杖)를 놓고 머리에 두른 끈(經)을 을 벗어야 합니다. 杖·經은 成服 후의 일이므로, 만약 成殯 후에 조문을 가면 主人은 당연히 披髮해야 합니다. 감히 여쭙니다.”(임금께서) 전하여 이르길, “내 처음 뜻은 成服 후에 조문을 가도록 하면, 조상을 서둘러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成殯 후에 하라고 한 것 뿐이다. 이것은 禮文을 살펴보지 않고 말한 것이다. 아뢴 바에 따라 成服 후에 조문을 보내도록 하라.”³⁰⁾

孝宗 즉위년(1649년) 6월 24일(壬子) 실록에서는 小斂說에 대해 기록했다.

丘氏가 말하길: “이것은 즉 머리에 두르는 띠(首經) 아래에 반드시 巾帽을 쓰고 받들어야 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委貌·爵弁같은 종류는 오늘날에는 없으니 마땅히 白布巾을 써야 한다.” ○環經은 삼으로 길게 엮은 것이다. ○斂訖은 素冠을 벗는 것이다. (『喪小記』注.) (『五禮儀』에는 없다) ○(소신의 생각으로는) 始死 때는, 아직 시신을 단장하지 않았으므로 효자는 被髮로 임하고, 小斂에 이르러 시신이 단장되면 효자 또한 장식을 하지 않을 수 없어 環經·素弁을 갖추었다. 그러나 國制에 그것이 빠졌으니 마땅히 古禮로 보충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³¹⁾

小斂說이든 成服說이든 모두 정약용의 『披髮本於說髦』의 “既殯에 說髦한다”라는主旨에 어긋난다. 만약 “披髮이 說髦를 바탕으로 한다.”라 한다면, 상주가 반드시 披髮하고 곡해야 한다는 의미 같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러한 가혹한 요구는 하지 않았

통 장자를 일컫는다. (장자가) 없으면 장손이 맡는다. 오늘날은 부친이 계시면 부친이 상을 주관하고 아들이 상을 주관하는 예는 없다고 한다. 두 가지 說이 다른 것은 왜인가? 대개 장자가 상을 주관하면 饋奠을 받들고 아들로써 모친상을 주관하게 되므로 은혜가 무거워 직책도 무거워지기 때문일 것이다. 朔奠은 그러므로 부친이 주관자가 되고 殷奠은 尊者가 주관한다.’ 『喪服小記』에서 이르기를 ‘婦의 喪에서 虞와 卒哭은 그 남편이 아들에게 주관하도록 한다. 虞와 卒哭은 모두 殷祭이므로 그 남편이 주관한다. 또한 부친이 계시면 부친이 주관자가 된다. 朔祭는 부친이 주관하는데 그 뜻은 虞·卒哭과 같다. 그러나 若子 두 글자를 생략하였다. 이것 또한 부친이 상주가 된다는 의미이니, 오늘날 인용되는 말과는 다른 점이 있다.’(『宣祖實錄』 33년 12월 丙戌).’

30) 『中宗實錄』 권47, 16책, 195면.

31) 『孝宗實錄』 권1, 35책, 373면.

다. 풀어헤친 머리가 飯舍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며 더욱이 조문객을 만날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만약 披髮을 귀밑털을 깎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또한 『孝經』의 이념에 어긋난다. 그래서 정약용의 예학은 이렇게 모순되는 한 군데를 남겨두고 더 이상 깊이 연구하지 않는 수밖에 없었다.

만약 매우 심한 애통함의 표현에서 나온 것이라면 매번 哭踊할 때마다 披髮해도 된다. 예를 들어 기일이 되었을 경우, 기일은 “부모의 상에 죽을 때까지 슬퍼한다”라는 예학정신을 드러낸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있었다. “撫山人 記官乙은 어머니를 모셨는데, 서른 세 살에 남편이 죽었다. 삼년상을 마치고 모친과 친족들이 모두 그 뜻을 꺾으려고 했으나 따르지 않았다. 모친이 팔십구 세 때, 봉양함이 더욱 지극해졌다. 남편이 죽고 20년, 매번 기일이 될 때마다 被髮하고 통곡하였다.”³²⁾ 이것은 민간에서 마음대로 한 것으로, 학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

小斂說이든 成服說이든, 그냥 넘길 수 없는 것이 飯舍禮를 언제 실행하는가의 문제였다. 飯舍禮를 실행할 때 상주의 풀어헤친 머리는 飯舍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정약용은 飯舍를 돈으로 해서는 안 되며, 明代에 유행한 풍속과는 다르게 구슬과 쌀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이 東漢 班固의 『白虎通』에서 제후·대부에 대하여 제정한 것이며, 古禮를 종합해보면 자못 마땅하여 귀족과 사대부 상례에서 빠질 수 없었다. 정약용은 심지어 飯舍이라는 古禮를 주장함으로써, 조선 상례에 있어서 披髮의 불편한 점을 지적하였다. 그의 『被髮不宜飯舍』에서는 적어도 飯舍시에는 斂髮(묶은 머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被髮은 古禮가 아니며, 禮에 매우 방해가 된다. 효자가 부모에게 飯할 때, 어찌 마땅히 被髮하고 행해야 하겠는가? 沙溪는 姜博士의 물음에 답하여, 斂髮은 小斂 후와 飯舍 시에 변하지 않는 의절이며, ……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冠을 벗고 徒跣하는 것은, 오늘날의 被髮과 같다고 하였다. 戴德의 『喪服變除』에서는 “염할 때 白布深衣를 입고, 素章을 사용한다. 甫冠을 쓰고, 白麻屨를 신는다.”라고 하였다. 『土禮』에서 이르기를, “馮屍(역자: 시신에게 작별을 고하는 의식)할 때 주인은 括髮하고, 어깨를 드러내고, 冠을 벗은 후 다시 쓴다.” 冠을 썼다가 거듭 벗는 것은 固禮에서 흔한 것인데, 被髮이 무엇이 다르겠는가? 飯할 때는 마땅히 잠시 斂髮하고 飯을 마치고 다시 그것을 풀면, 또한 무슨 해가 있겠는가? ³³⁾

32) 『世宗實錄』 권42, 10년(1428) 10월 丙午.

33) 丁若鏞, 앞의 책, 3집 21권, 『喪儀節要』, 466면.

餘論. 중국 예속과 조선 예속

이제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상례 披髮의 구체적 의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조선왕조의 典制는 『明集禮』에 가깝다. 비록 남자의 披髮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문제 또한 필수적인 것으로 암시하였다. 정약용 등 사대부들의 예학은 당송의 예를 받아들여, 그들의 禮書는 『開元禮』·『政和五禮新儀』를 많이 본받았다. 특히 ‘被’가 아니라 ‘披’를 쓴 것은 완전히 송대의 禮典을 계승한 것이다. 그러나 당송시대의 披髮이 상고의 剃髮에 括髮을 더한 것인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며, 대략 剃髮 겸 括髮이 풀어헤친 머리로 진행되는 과도기였을 것이다.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可毀傷.”이라는 관념은 宋明理學이 강화된 후에 사회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조선의 학자 정약용은 括髮과 披髮의 禮制 연원을 고찰하였으나 여전히 說髻·括髮의 상고 예속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직접 당송명의 의절을 흡수하였다.

고려 말기, 수백 년 동안 흥성했던 불교가 점차 쇠퇴하였다. 『家禮』가 한반도에 전해진 이후, 侍中 정몽주가 부친상을 당하여 불교의 상례를 따르지 않고 廬墓 옆에 家廟를 세우고, 『家禮』에 따라 상례를 진행하고, 이어 上書를 올려 전국에 『家禮』를 시행할 것을 청했다. 조선시대 초, 사람들이 다투어 정몽주를 본받아 廟를 세우고 제사를 지냈다. 태종 初年, 平壤府에 명하여 『朱文公家禮』 150부를 인쇄하고 각 司에 배포하도록 하였다. 민간학자들 또한 『家禮』에 열을 올렸다. 그 중, 沙溪 金長生의 『喪禮備要』는 가장 이름이 높았던 책으로 “『家禮』를 이어 禮에 대해 논한 것 중 우리 동방에서는 『喪禮備要』만이 가장 적절하여, 현재 사대부들이 모두 이를 따른다.” 『喪禮備要』는 喪·祭만 주로 다루었는데, 李緯가 『家禮』를 綱으로 하고, 『喪禮備要』의 체례를 본받아 冠·婚을 추가하여 『四禮便覽』이라 하여, 이 또한 민간에 널리 전파되었다.³⁴⁾ 주희의 예학이 동으로 전해지는 중에 상례가 먼저 조선학자들에게 중시되었고, 그 예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상례 중의 披髮(被髮)과 조선의 일상 髮式이 서로 융합·접합된 것은, 조선의 중화 정통관의 반영이며 상례 의절 중 특징적인 부분이다. 필자는 조선왕조의 중화 정통관과 그 민족의식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였으며, 萬東廟의 건립이 그 주요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

34) 參彭林, 2004 『中國古代禮儀文明』, 中華書局, 281~282면.

조선 肅宗(1674-1720년) 시기, 宋時烈 등 학자들은 ‘尊周’之義와 ‘萬折必東(황하는 아무리 굽이가 많아도 반드시 동으로 흘러간다)’의 사상을 주창했다. ‘尊周’之義는 중화 정통을 앙모하는 것이며, ‘萬折必東’은 조선의 특수한 지리와 독립적 민족의식을 드러낸다. 宋時烈·權尚夏 등은 明 神宗을 위하여 공덕을 베풀고 그 명복을 비는 일을 계기로 삼아, 慕華攘夷의 정통사상을 밝히 펴고, 민족의 조상을 숭배하기 위해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몸소 실행하였다. 尹鳳九(1683~1767)의 『代掌令宋思胤請賜萬東祠祭田·特謚宋公甲祚疏』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살펴보건대 先正臣 송시열은……일생 동안 尊周의 大義를 家計로 삼아 항상 環東土 수천 리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에 神宗황제께서 도와주신 은혜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날과 달이 빠르게 지나고, 義理가 점점 어두워져 세상에 尊周의 義가 다시 없게 되었습니다. (송)시열은 만년에 자주 탄식하며, 書室 옆에 祠宇를 세워 제사를 지내고, 측은히 여기어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이로써 萬折必東의 뜻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그 뜻은 실로 楚人들이 茅屋을 지어 昭王을 제사 지낸 것을 본받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朱子 역시 일찍이 그 친구 張栻을 위해 南嶽廟에서 제사를 지내고 (장식의) 神을 전송하는 글을 지었습니다. 南嶽廟라는 것은 虞帝의 廟입니다. 宗國이 망하고 血祀가 끊어져도 編戶들이 제왕께 제사를 지내면 義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先賢들이 참람하다 생각지 않고 행한 것입니다.……갑신년 봄에, 籩·豆의 禮를 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華陽山에 사당을 지었는데, 居民이 매우 적으며 물품과 힘이 부족합니다.……만약 조정에서 약간의 조세와 노비를 제공하고, 나라 제사 때 쓰는 기장과 피를 내려주신다면, 주변 백성들의 수고를 덜고 전심으로 제사를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니, 실로 그 일을 중히 여기고 그 의를 높이는 道에 합할 것입니다.³⁵⁾

이러한 중화 정통관과 ‘萬折必東’의 ‘大東’민족의식의 작용으로 인해 조선왕조는 상례 중 비교적 확고한 取捨가 있었다. 학자들은 古禮에 대해 고증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송명을 예속의 정통으로 삼고 唐禮를 참고하여, 일국의 모범으로 삼았다.

35) 參彭林, 2004『中國古代禮儀文明』, 中華書局, 281~282면.